

여수 참다랑어 양식 “참 어렵네”

저수온으로 자연산 치어 못구해 시설 설치 완료후 1년째 스톱

황금알을 낳는다는 참다랑어 양식 사업이 종묘화보에 실패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1년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말부터 사업비 14억원을 들여 여수시 삼산면 서도지선 1.1km 해역에 20ha 규모의 ‘참치 외해(外海) 수종기두리 시범 양식사업’을 전개했다.

시는 적지조사 용역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2월 시설 설치를 마쳤지만 참다랑어 치어(稚魚)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여수시와 시범 양식 사업자 ‘남해 참치양식 영어조합법인’ 등은 당초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잡은 참다랑어

치어를 확보해 양식을 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수온이 낮아 단 한 마리 치어도 확보하지 못했다.

치어를 일정으로부터 수입하는 일도 원전 사고로 인해 수산물 반입이 쉽지 않아 시범양식 사업은 1년째 표류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등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범 양식 사업을 실시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치어 확보에 대한 지원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시는 고육지책으로 정치망 등 선망 어선과 MOU를 체결해 치어를 구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기운에 민감한 참다랑어 치어 상당수가 포획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난해 저수온으로 치어를 전혀 확보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며 “올해는 정치망 등 선망과 MOU를 체결해 여름철에 치어를 포획해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참다랑어 인공 종묘 양식기술은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스페인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완전 양식에 성공한 나라는 일본 단 한 곳으로 국내에서 참다랑어 양식은 치어를 잡아 양식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인공 종묘 생산은 현재 국립 수산과학원이 3년째 기술 개발 중이지만 생산이 완료되려면 2014년 이후에나

가다가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 기술을 통한 수질란 인공 부화율은 80%에 육박하지만 이를 바 서로를 잡아먹는 ‘공식(共食) 현상’ 때문에 살아남은 치어는 수십마리 중 10여 마리에 불과하다.

국립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참다랑어 양식은 인공 종묘 기술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치어 확보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다”며 “현재 종묘 기술 개발 완성을 위해 어미 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광양 매화축제 국제행사로 치른다



내달 17~25일 섬진강변서
외국 자매도시·대사 팜투어

올해 광양 매화문화축제가 국제 행사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한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제15회 광양 국제 매화문화축제’가 ‘봄날의 설레임, 매화꽃 어울림, 하나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섬진강변에서 오는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열린다.

축제기간 동안 국제 매실 심포지엄과 국제 자매 우호도시 초청 국제 문화관 운영, 주한 외국 대사관 초청 팜투어, 외국 문화체험 및 기획 공연, 세계 전통음식 전시 및 시식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주 행사를 설치한 국제 문화관은 광양시와 자매 우호도시를 맺은 중국의 선전·샤먼, 푸저우시와 일본 이즈미오쓰시, 필리핀의 까야마오로시, 오스트리아 린츠시, 체

례의 밸라리아소시 5개국 7개 도시가 참여해 각국 문화와 관광을 소개한다. 또한 국내도시로는 여수 엑스포와 ‘2012 광양 월드아트 서커스 페스티벌’ 흥보관이 병행 운영하게 되며, 중국 사면서 전통악기 공연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청소년 무용단 공연도 선보인다.

이 밖에도 주한외국 대사관 초청 팜투어에는 일본, 베트남,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파나마, 우크라이나, 폴란드, 페루 대사 등 총 15개국이 참여의향서를 보내왔다.

황재우 축제위원장은 “올해부터 축제 로고와 캐릭터(매화랑·매실이랑)를 개발해 기념품 및 상품화에 활용해 ‘수의창출형 축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병진기자 pyj4079@

순천 3개기관 학교폭력 상담인력 양성 업무협약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순천지역 3개 기관이 손을 잡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상담인력 양성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순천시와 (재)청소년 폭력예방 재단, 순천교육지원청은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순천시는 학교폭력 상담사 양성과 정을 평생학습관 교과과정으로 개설

하고, 청소년 폭력예방 재단은 순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찾아가는 ‘학교폭력 상담사 양성’ 교육과정을 주관한다.

또 순천교육지원청은 교육 과정에 참여할 교사를 선정해 수강토록 한다.

상담사 양성교육 대상은 관내 초·중·고교 교사와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원 등으로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연간 4기로 운영된다.

서북남 순천시장관 한대행은 “은 이 날 업무지원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 협약체결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3개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학교폭력 예방에 공동 대처하고 상호협력하고 실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달 30일 14개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한 ‘순천시 학교폭력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유관



기관과 협의해 지역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각 기관 단체별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정정열기자 jyj@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휴나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휴나잇 온열오븐 을 검색하세요



제조방법) 특수제작한 슈파클렉스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외는 비교가 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휴나잇 반신욕기는 특별할인판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 휴나잇 반신욕 카페모집- 노인정, 복지관, 경로당, 사찰, 교회, 휴나잇반신욕기증여실본 모십니다.(본사에서 적극 지원합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제작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립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립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전국민 공부합시다!
www.successsvt.co.kr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간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경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마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 대한 궁금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기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